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창조교양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새로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정선 편집인:노경환 편집국장:이형수

성찬주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가장 귀중한 예식이다. 그것은 성찬이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며, 성찬의 표지로서의 떡과 포도주에는 외적·내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 무엇보다도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소명의 장소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그러므로 성찬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살피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가 요청될 뿐이다.

성도는 성찬예식에 앞서 각자의 마음 중심을 돌아 보아, 믿음의 존재여부를 살피야 한다. 만일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잘 것 없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먹기만 한다면, 각자의 입에서 느껴지는 체험은 천국의 메시지가 된다. 그것으로 그와 눈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코와 입으로 맛보는 체험적 차원으로서의 메시지가 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성찬’에 대한 소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성례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삼자기에 성화하신 그분의 사역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인을 치셔서 새 언약의 인을 받도록 하신다. 삼약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가족이라는 화환임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시한다. 세례는 가림의 성례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교통의 성례이다”(E. P. Clowney).

우리는 자기에 대한 한 번의 식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 가족임을 확인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한 성례에 의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식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영원한 만민으로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소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영혼하시는 세 분을 향해 영광과 감사와 고백과 찬송을 드리도록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의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자유의사의 새로운 창조를 베푸실 것이다.

월요일오전그말씀/2월 8일, 15일 금요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심

이스라엘의 시작(8월 설교)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출 12장-15장 21절)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기 위하여 열 가지의 재앙과 불길동, 구름기둥,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 그 자체는 언약의 완성이 아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것이 곧 언약의 완성이라 생각하고 바로 눈앞에 새 땅이 펼쳐져 있을 소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침울 때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약속만을 의지할 원한까지 한 자라니 뜻밖의 뜻밖이 났었다(신 17:17-18).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였었다(사 1:2). 사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함이다(신 7:7-8). 현대의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주의 자라 됨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땅을 세 땅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 안주할 원한과 잊지는 않는가? 성도의 날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요 9:5).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주의 인을 할 때이다.

이스라엘 봉사의 본질(15일 설교) -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부 언약을 세울 것이라”(출 15장 22절-24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유를 누리야 할 지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배한 언약’을 통하여 혼돈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를 제정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시고, 구원된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백성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통치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언약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 중에서 앞의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써,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은 백성과 백성의 관계로써,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인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의 노예생활로 인해 물든 그 땅의 풍습을 떨쳐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출 18:2),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맹맹한 하나님께로 인도될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봉사의 본질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인 속에서 규명되지 않는 백성의 창조주이시니, 인간이 만든 모든 속에서도 규명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키신 등 자신이 만드신지 자연환경까지도 변형시키고 파괴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강 그 언약을 잊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했다(출 1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잊은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까? 얼마나 우리의 흐름과 자연 환경을 중요시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얼마나 많이 간파하였는지 물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두 보여주고 증거하셨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그 언약을 잊었다. 그것은 언약을 세상의 관례로 옳은지 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의 관례는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나 세상의 관례 속에서 맺어질 수 없다. 양면으로 보면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관계를 맺지않아 타협하지 않으셨다(출 18:2-4). 세상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드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만이 남았다.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배신할 것인가? 온전히 언약을만 의지할 것인가?



3월 교회 일정

3월(주) 제2차 성찬식
6월(수) 정기1당회
12월(화) 주년성경공부 1학기 개강
24일(주) 총려주일 / 천 교인 연합예배
25일(월)~29일(금) 고산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9일(금) 성공요일 특별회
31일(주) 부활주일

신령한 찬미로 드리는 제사

200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길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몇 날이 못 되어 흐트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이슬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들을 자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금년에도 충현교회에 5대 목표를 주시고 그 첫 번째인 ‘신령한 찬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데 중요한 위치가 있는 찬양대와 연주원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와 훈련으로 열심히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매 주일 2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의 예배시간 15분 전 예배 전 찬양이나 연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순서를 드리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연습합니다. 예배 전 찬양과 연주는 음악성이 연주 솜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들의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찬양에 동참하여 예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외 지구촌 곳곳에 많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 전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에 동참하며 산 제물이 되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홍 (전로, 전인원관)
*다들들 필자는 예배위원장 박영식 목사님입니다.

God's little people (2 Kings 5:1-4)

Now bands from Aram had gone out and had taken captive a young girl from Israel, and she served Naaman's wife.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master would see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Naaman was a man who had attained great success. He was the captain of an army of the king of Aram. He was highly respected because by him the Lord had given victory to Aram. The man was also a valiant warrior. He had gone out and taken captive a poor little girl from the land of Israel. He made her a slave, a servant to his wife. Here is the situation. This great man was a leper. Leprosy was a non-curable disease at this time. Mentally and physically he was done for. There was no hope for him, but in his life there came joy and happiness because of one of God's little people. Amen.

The Bible purposefully mentions God's use of little people for His ministry. This is His way of ministry. This is God the Creator's ministry! He uses modest, humble, and meek people for His glory. Soft believing hearts are what make humans God's people. He used this little slave girl to proclaim His gospel to the nation of Aram. When Naaman was healed he told Elisha that he would no longer offer burnt offerings or sacrifice to other gods, but that he would only worship the Lord. He took soil from the Holy Land back home to use in worshipping (see 2 Kg. 5:17). Look at Hebrews 4:15,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 Lord does not ignore our weaknesses. He gives us sympathy. In all our circumstances, in all our sorrow and frailty, He always cares. We can confidently come to Him and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When we read the story of the woman who had a hemorrhage for twelve years in Mark 5:25-34, we find a lonely woman who lost all her money trying to get well. Her condition didn't get better, it got worse. She was in a terrible position. Jewish customs viewed people with sicknesses that involved blood as really dirty. This poor woman became weak and really little. She went to Jesus and touched Him. Jesus rewarded her faith,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v. 34). The Bible clearly points out God's use of little people for His ministry. That's amazing grace!

Also, God recognizes His little people's acts. Remember the poor widow who only gave one cent for her offering? Jesus saw this.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told them,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contributors to the treasury" (Mk. 12:43). Amazing. God recognizes little people's actions instead of big peoples. God's eyes look at little people and recognize them because He needs little people. In the eyes of humans, the widow was poor and small, and her offering was nothing. But Jesus' measurements are different. He looks at the heart. My dear friend, don't calculate things using your own measurements. God watches your heart. Offer your heart in evangelism, missions, raising kingdom workers, and loving your neighbor. This is God's message, this is His order to our church.

God raises little people to honor. Do you remember the Jericho beggar? This blind man sat by the roadside begging for food and money. When he heard that Jesus was approaching, he started to call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k. 18:38). The people around him sternly told him to be quiet, but he continued to cry out. Jesus heard him and asked him what he wanted Him to do for him. The blind man said, "Lord, I want to regain my sight" (Lk. 18:41)! God never ignores little people. He raises them up. He meets them. Indeed, the Son of God wants to hear that voices. Jesus told the blind man, "Receive your sight;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Lk. 18:42). Faith is good and brings honor to those who practice it. Acts of faith bring glory to God. The blind man's faith brought God's revelation miracle to happen.

Not only that, but the Bible tells us that God uses little people as His disciples. The Samaritan woman told Jesus,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He who is called Christ); when that One comes, He will declare all things to us" (Jn. 4:25). Jesus said to her, "I who speak to you am He" (Jn. 4:26). So the woman left her waterpot, and went into the city and said to the men, "Come, see a man who told me all the things that I have done; this is not the Christ, is it?" (Jn. 4:29). God didn't use a "qualified" person, this woman was like a prostitute, but God used her. The whole village was saved.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2,000 pigs that died? God used a crazy man as His disciple. In Gerasenes, the Lord raised a disciple. He didn't raise a disciple from Jerusalem. He didn't choose one of the high priests, scribes, or Pharisees. No, God didn't pick them. He took a demon possessed man and changed him into a minister. Jesus told this man to return to his house and describe what great things God had done for him, "So he went away, proclaiming throughout the whole city what great things Jesus had done for him" (Lk. 8:39). Amen. God uses little people as His disciples.

God uses the very little things to make very big things. Remember the boy who had five barely loaves and two fish? This was the cheap food of the common people, but God used these small portions to feed a very large crowd to satisfaction (see Jn. 6:9). God used these little things from a little person to create a wonderful ministry miracle. The very little thing you do, you will receive a return, "For whoever gives you a cup of water to drink because of your name as followers of Christ, truly I say to you, he will not lose his reward" (Mk. 9:41).

Listen my friend, do you believe in God's ministry? Do you believe in God's power? Today, His message to Choong Hyun is that He has a plan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Don't discount the little people and the little things. Open your hearts to the Creator's plan. Humbly obey and confess, "Lord, here I am, use me as your instrument." Amen. 卍

작은 자, 하나님의 도구 (왕하 5:1~4)



김석관 목사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큰 용사,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또한 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고 자기 아내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당시 불치의 병이던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사로잡아 왔던 하나님의 작은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사람을 사용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창조자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겸손하고 유순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보잘 것 없는 여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희생을 드리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왕하 5:17). 히브리서 4:15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은 자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염신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물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슬픔과 연약함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고, 자비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때에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우리는 마가복음 5:25~34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소비한 고독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썩어빠진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서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터러운 피가 섞여 질병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해되고 정감로 나아진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께 나아왔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감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작은 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열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단지 한 고드란트를 현금으로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열매보다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막 12:43).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보다 보잘 것 없는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향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인은 가난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드린 헌금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천국 일꾼을 키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중언회교에 주신 명령입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여기고에서 구원한 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소경은 길가에 앉아 음식과 돈을 구걸하

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8).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에게 다가가서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십니까!”(눅 18:41).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잘 것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러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 18:42). 믿음은 선행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소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메시야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요 4:25).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26).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린 지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냐?”(요 4:29).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파는 율리야와 같았던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제자로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후시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몰사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미친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주께서는 한 사람을 제자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살렘 출신의 제자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선택되지도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서 기뻐하셨고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자를 붙들고, 그를 사역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신 후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하신 것을 온 성에에 전파하시니라”(눅 8:39).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작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작을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매우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매우 커다란 것으로 만드십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생애해 보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한 사람을 위한 한 끼 정도의 값싼 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는 이 작은 한사람의 한끼 식사를 가지고 매우 무리를 만족스럽게 먹이셨습니다(요 6:9).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주시기 위해서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있는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매우 작은 것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불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눅 9:41).

모두를 향하고, 각자를 향한 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중언회교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 각자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과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도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자의 계획에 향하여 열어놓으십시오. 겸손함으로 순종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아멘.

인생을 바꾼 예수님

이 사 사 (외선부 카자흐스탄 교사)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사사입니다. 저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19살까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너무나 고생하면서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쾌락을 위해 그 돈을 쓰는 것이 참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도 100%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부모님의 노력으로 저는 KGB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일하다 쫓겨났지만,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KGB에서 일하는 직원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99년 말, 제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에 친구들을 만나러 충현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충현교회에 나온 지 3개월 후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눈물을 흘리는 전도사님과, 아주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는 교사들을 보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급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짓(show)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무언가를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상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일교회에 나와 CIS 교사들과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저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속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깨닫고 나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저는 18세기에 영국에 살던 존 웨슬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생명의 길을 열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그 책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알겠느냐? 네가 왜 이 세상에 살고있는지 알겠느냐? 너의 생애에 대한 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느냐? 내가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를 사용한 것처럼 너를 카자흐스탄에서 사용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통하는 하나님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의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의 생각과 성격과 생명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이번에 충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인간 7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우리는 앞에서 최초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破斷)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나 타락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차단시키심으로 생명나무에 표시된 내용인 생명은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죄가 가져다 주는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는 크게 불신앙, 불순종, 교만, 미움 등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칼빈은 불신앙을 타락의 뿌리로 보았다(II, i, 4). 또한 죄는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마 13:58; 17:17), 교만으로(잠 8:13; 14:3; 15:25),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에서 명한 사랑의 반대인 미움(신 6:5; 수 22:5; 롬 3:11-16)으로 나타난다.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동일하나, 다양하게 표출되며 계속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이므로, 죄의 네 가지 요소들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하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마음이 철저히 파멸했기 때문이고,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인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다. 바로 이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재난을 초래했고, 전리로부터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하였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이웃이 불화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롬 5:15,17).

인간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게 얽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오직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눅 15: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마 2:10).

(다음주에 계속) (이성목 목사)

2002 단기선교 국가소개 3

러시아

동서 길이 약 9,000km, 남북 폭도 길이 약 4,000km, 토지 면적 약 25,000km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은 21개 공화국, 6개 지방, 50개 주, 10개 자치관구, 특별행정구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억 4,639만 4,000명(1999)이고 인구밀도는 8.6명/㎢(1999)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70년 동안 종교적 미신행위의 제거를 정책으로 공표해 왔습니다. 무신론이 정당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비공인한 신앙의 고백은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학에 탄압을 받거나 제재를 받았으며, 공산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되고 이용되었습니다. 수백 만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거나 투옥되었고 수 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무종교인 32.7%

교회 8.7%(주로 테레티와 코자르스키)

불교 0.6%

크리나노 0.47%

유대교 0.4%

자비니 1/100,000(0.8%)

기독교 56.3%(정교회 16.5%)

개신교 0.7%(아미원인 대 총 7천명, 성령을 4.1%)

많은 선교사들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러시아인들과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고려인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어려움을 가운데서 중헌교회 오호선부 CJSF에는 20여 명의 러시아인 형제·자매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다면 많은 이분들을 통하여 러시아인들이 대량으로 더욱 열매를 맺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

1. 1991년 이후 한국, 대륙하며, 공군장교, 공군기안 등에 복음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들어갈 사람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든지 그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하여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여러 선례에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복과 소망의 평화를 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청년 2) 다문화 3) 신종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 4) 신비주의자, 수백 만 명이 TV를 통해 전파된 초심리학과 미법, 심지어 사탄술사에게 빠져 있습니다.
4.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학생회에서 회계 겸 친교지기를 맡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저는 2002년도 부회장 선거에서 탈락하면서 잠시 어그난 생활을 했었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나, 교회를 옮겨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구요. 그럴 때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지만 무엇보다 저는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497장 인데요, 후렴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나가 축복받을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하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때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 허덕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만 믿고 의지해요. 학교공부도,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제 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청지기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매하여 잘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여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 있는 나를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주의 만전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사니 감사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갑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성찬을 진정으로 고대하며

매일 매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며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진정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려는 열정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어 주시고

이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성도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위의 많은 천지들과 동료들이,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건만

저는 너무나 무력하게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니다.

바쁜 세상에 매진 자 되어 주님의 역사에 전력하지 못했습니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습으로의 부 착한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과 호흡하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교구에서, 교회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게서 맡겨주신 생명을 대해 헌신하게 하옵시고

매일, 매시 주님의 성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진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복을 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성호~고등부 교사



잇는다는 것에 관하여

조옥자 (고등부부지도)

이제 신학기입니다. 봄이 되어 우리의 몸은 헬기 왕성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잇음과 묶음. 잇음과 묶음은 그 용례가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사합니다. ‘잇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다. 알아내지 못하다. 생각하지 아니하다. 놓고 오다’이며, ‘묶다’는 ‘잇던 것을 끊어 하다. 놓치다. 죽게 하다.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구별되는데, 잇음은 사고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묶음은 실존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어도 그에 관한 기억을 간직하였다면, 그 잃은 것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더라도 그가 의식을 멈추지 않는 한 여전히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이 일의 우선순위에 가지기준에서 밀려나 잊혀졌다면, 그것은 실존하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끔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면, 절망의 시기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의 때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잇음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시간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신앙도 잃는 것이기에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신 32:8, 시 78:11; 106:21, 렘 44:9, 겔 23:35).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히 12:5).

셋째,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베후 1:9, 렘 44:9).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산다면, 당신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영예실입니다.

먼저 제가 빨리 완쾌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원망스러워 눈물이 나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 정말 외롭고 힘들었지만 저의 염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구요, 그 때 깨달았어요. 저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요,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염마에 함께 기도하며 있어 준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목사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니다.

한 달 동안의 병원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큰 힘을 얻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잘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사]

초기의 선교활동(3)

성경번역과 문서선교

개신교의 한국 유입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 성경이 번역·발행된 것과 중 상당수가 국내에 유입되어 상당수의 기독교자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사실 개신교 선교사는 성경 번역과 발행 및 전파 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찍 우리말로 번역되어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경 중심의 선교 전통은 1885년 선교사의 입국으로 기독교 선교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한 것 외에 성경 번역 사업에도 적극 착수하였다.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주던 이학 선생이나 조사(助事, 목사를 도와 전도하던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1887년 서울에 있던 선교사들이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인 성경 번역 사업에 착수했다. 마침내 1900년에는 신약 전체가 한 권으로 묶여 인쇄되었고 1910년 구약 전체 번역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다.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와 기타 기독교 교리 및 전도 문서들, 교회개통의 각종 정기간행물들도 한글로 인쇄되어 나왔다. 찬송가 발행은 1892년에 미감리회 선교사 존슨과 로드와일라가 편집해 낸 찬미가를 그 효시로 본다. 기독교 정기간행물도 교과적 배경을 갖고 1897년에 간행되었다.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로는 1892년 미감리회 선교사 올링거가 발행하던 The Korean Repository란 영문 잡지가 표시다. 우리말로 된 잡지는 1900년 12월에 창간된 신학월보가 표시다. 1889년에는 올링거에 의해 배재학당 안에 인쇄소가 설립되면서 단행본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인쇄 혹은 발행해 낸 초기 기독교 문서들로 인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 향상에 기여한 바는 실로 크다 하겠다. 1890년에 초교과(장·감 연합) 문서사업 기관으로 ‘조선선교서회’가 설립됨으로 보다 체계적인 문서 선교의 기틀이 잡혔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이다.

이상에서 성서번역을 비롯한 초기 문서선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종 문서와 서적을 출판해 낸으로 기독교 복음전파가 한결 쉽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출판에서 한국인 저작이 극히 드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실은, 한국인의 것을 나타내던 주체적 복음 수용을 뒷받침할 만한 신학 수렵의 기호가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주체적 복음 수용과 신학 수렵이 병행될 때 진정한 기독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 상 말 (새가족부 양육관 3·5)

60평생을 쉼 없이 출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정에 남아 있는 세 자녀들과 함께 나오지 못함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부부가 늦게나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감사하며, 이 영광을 참 좋으니 주님께 바치옵니다. 죄 많고 쓸모 없는 저희 부부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 마음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나 감당할 항상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주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전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써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부부를 위해 매주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신자 가족들과 모든 성령님을 축복해 주시라 그분들이 취직 하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멘.

간병인의 글

웃으며 가는 자들

윤 옥 자 (권사, 12교구)



‘간병’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주변에서 죽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죽는 사람들의 반응도 참 다양하다.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고, 슬퍼 우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담 대하고 묵묵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죽는 사람 대부분은 신기하게도 기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천이다.

한 번은, 많은 것을 소유한 한 불신자의 죽음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죽기 전에 가족들을 의심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무얼 하겠는가? 그가 왜 죽기 전에 의심하고 시기했겠는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는다. 사람들이 간호하기를 회피하는 한 전염병 환자가 있었다. 간호사도 간병인들도 그 사람들이 간호하기 꺼려했고, 간병을 맡았다가도 며칠 못 가서 그만 두었다.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꾸준히 그 사람을 간병했다. 그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그의 세 명의 아들들은 돌아가며 문병을 했고 그들은 내가 불러주는 찬송을 좋아했다. 그들은 양·한방 어느 병원에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어떤 환자는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는 ‘하나님 뜻대로 전할 때에 간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갔다. 나와 같은 구역의 한 성도의 남편은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처음엔 고통스러워하고 잘 밤이들지 못할 정도로 나 목사님을 모신 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오히려 가족들에 대해 기도해 부탁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환자가 불안해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후 편안해지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그렇다고 모든 크리스천이 다 죽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죽을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크리스천답다고 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살 또한 뭐가 두렵겠는가? 그러나 크리스천 앞에는 담대함뿐이다. 죽음 앞에서도 살 앞에서 담대한 크리스천이 되자.

양소실

“너와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미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사 62:1~7)

6교구 안양소 성도님(74세) 뇌졸중으로 입원 중입니다. 의식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장성소 권사(여 83세) 폐질환으로 치료 중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하고 병이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경자 집사(여 60세) 교통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17교구 변정교 집사(남 76세) 간암으로 통풍이 심합니다. 통풍이 완화되고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현 집사(남 72세) 안구막막막리 수술 후 회복 중 눈 뒤에 물이 차서 시력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심상국 성도(남 72세)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힘든 치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주일 집중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작사(자민 밴더), W. Van De Venier, 1855~1939) 곡사는 원래 에베 방면에 특화된 소집을 보며 일찍부터 예술가적인 대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후 나 후 예술가와 전도자는 진로 앞에서 고쳐서 마틴루 루에 주께 무릎을 꿇고서 남은 생애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바나나 이 찬송가이다. 작곡은 밴더 목사의 교회에서 찬송 인도자 및 독창자로 활약했던 윌리엄(Wilfred Scott Weedon, 1847~1908)이다.

1절 원문은 ‘Surrender’란 말의 나옴은 이는 ‘항복한다’는 의미로, ‘내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내 뜻과 생각까지 다 내어놓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구다.

후렴 이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의 전부였다. 그러한 아들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브라함이 한 마디 불평없이 순종한 것같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립니다. 겸손히 주께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 출가를 모두 버렸으니 주께 바치소서.

3절 완전 헌신에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다. 즉 나 모든 것을 예수께 바칩니다. 진정으로 주의 것만으로도 주의 성령 내게 충만이 임하시라 거룩한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찬송이 헌법을 드릴 때 주로 사용되었으나, 가사를 좀더 음미해 보면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

(찬양위원회)

하나님!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유 주 욱 (집사, 유치부 교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의 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걸지도 못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하들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골수염 때문에 저의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애틋한 사우디에 계셨답니다.

저는 매일 울었어요. '다리를 자르면 나는 어떻게 살고, 또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아이들은...' 그 당시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때 딱딱 뚱뚱한 경원이가(당시 6세) 세수하고 들어와 아랫목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교사같은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다리 빨리 낫게 해 주셔서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는 일어나 나가 뛰에 노는 것이었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밤이 먹고 싶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딸을 통해 내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철야 아닌 철야로, 기도 아닌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맘세 달달했어요. '하나님, 내 다리 꼭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몸부림치며 밤새워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딸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몸을 낫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셨어요.

그 당시 6살이었던 딸이 지금은 어엿한 아가씨로 잘 자라 저와 함께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합니다. 교사로서 이런 생명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새싹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어린 새싹들에게도 귀한 믿음주셔서 믿지 않는 부모·형제·친구들을 위해 고사리같은 손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해 주세요. 또한 어린 자식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도 귀한 믿음주세요. 급할 때는 어린 생명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진리의 생

스바냐(Zephan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1)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 그리고 '구시의 아들'! 이것이 '스바냐'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전부입니다. '여호와에 의해 숨겨진' 또는 '여호와에 의해 보호받은' 이런 뜻을 가진 그는 '히스기야'의 4대 후손입니다. 물론 그의 조상인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말하자는 정략하게 알 수 없지만, 동일인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을 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아' 왕의 시대였습니다(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와 '요시아' 왕은 친척인 셈입니다. 요시아 시대에 관한 역사는 열왕기상 21장-23장과 역대하 33장-35장, 그리고 예레미야 36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분위기와 사건들을 먼저 정리하고 '스바냐'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개혁할 때 왕의 행동이었던 '스바냐'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신지서도 '여호와와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53절로 구성된 '스바냐'가 '여호와와 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20회 이상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신지서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선포했음을 의미합니다(요엘 신지서와 벰후 3:10-18과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를 읽으면서들의 단어들, 즉 '여호와와 날' (1:7), '여호와와 의 뱀의 날' (1:8), '그 날' (1:9, 10, 15; 3:11, 16), '여호와와 큰 날' (1:14), '여호와와 분노의 날' (1:18; 2:2, 3), '내가 일어나 벌할 날' (3:8), '판대를 치는 날' (1:16), '한나라 고도의 날' (1:15), '황무와 폐괴의 날' (1:15), '강림하고 거두는 날' (1:15), '구름과 흑암의 날' (1:15)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이 싫어했던 죄가 바로 스바냐가 지적했던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대하 34:35).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스바냐'는 구체적으로 심판대상의 민족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신령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10년만에 태어난 하검이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모든생활이 바뀌었어. 또한 교사로 영아부에 참석하던 저희 부부는 이제 학부모로 영아부에 참석하게 되었어. 하검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거울성경학교를 나름대로 기도 하면서 기다렸는데 하검이가 갑자기 심한 감기로 눈병까지 얻게되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기가 많이 아픈데 꼭 참석해야 하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런 날의 행편을, 첫날은 참석하고 다음날은 하검이랑 꼭 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 했어.

그런데 성경학교 전날 갑자기 하검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한 집사님의 말씀이 컸어. 맨 들었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 주셨지만, 하검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돼. 그 말씀은 분명 집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고 믿음이 나락해진 저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어. 내가 거울성경학교를 가지 않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검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 '주님! 성경학교에 꼭 가겠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에 가서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이수선하고 지끄리서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지끄리서기 모를 정도였습니다. 신령한 예배! 신령한예배! 늘 우리 출현 회회가 하던 그 기도가 절실하게 꺼졌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태해진 나를 하나님은 어떤 거울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시금 신령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막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락해진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검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검이 마음을 바로 잡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저와 하검이를 초대하고 친히 만나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연경 집사·영아부 전회경 엄마)



Catechism

24. 주님의 성찬에 관하여

(1) 성찬의 목적과 그 의의

예수님은 자기와 몸과 피로 맺어진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지키도록 제정하셨는데, 이것이 곧 주님의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위하여 성령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속신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자비를 참히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이 예식은 참신자들로 온전히 연합하는 보충의 표가 됩니다. 신자들은 이 예식 안에서 영적 양식을 얻어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교제하며, 우리로 그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가 다시 성육간에 바쳐지다는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가 신자 속의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성체적인 성령 제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성령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2) 성찬의 본질과 요력

사적인 예배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성찬을 물로 받거나,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성령적 경배하거나, 성찬을 비성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참신하지 못한 자에게 주려고 보편하는 일은 성령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의 요소들 떡과 포도주라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신체의 본질에 있어선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단순한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취함으로써 떡과 포도주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령에 모순된 뿐만 아니라 신성과 이성에도 모순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본질을 무너뜨린 생각이며,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외적인 요소를 할당하게 받은 신자들은 내적으로도 성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믿음에 현실적으로 분만 아래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며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께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무지하고 불평한 상태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참여가 허락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김경배 전도사·천원부 부지도)

